

뉴욕 증시, 기업 실적 호조에 상승 마감…다우 1.6% ↑

등록 2022.12.22 06:17:06 | 수정 2022.12.22 08:19:43

| S&P500 1.49% 상승…나스닥 1.54% 올라



[뉴욕=AP/뉴스시스]뉴욕 증권거래소의 한 중개인이 4일(현지시간) 주식 시세를 주시하며 일에 몰두하고 있다. 2022.3.5

[서울=뉴스시스]유자비 기자 = 미국 뉴욕 증시가 21일(현지시간) 나이키 등 주요 기업 실적 호조에 힘입어 2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이날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1.6% 상승한 3만3376.84에 폐장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일보다 1.49% 오른 3878.44에 거래를 마쳤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일에 비해 1.54% 상승한 1만709.37으로 장을 닫았다.

CNBC에 따르면 샘 스토폴 CFRA리서치 수석투자전략가는 "시장이 반등할 구실을 찾고 있었고 나이키와 페덱스가 구실을 제공했다고 본다"며 "오래 지속될 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나이키 주가는 월가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한 후 12.3% 급등했고, 다른 소매업체 주가들도 함께 상승했다.

페덱스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주당 순이익을 보고한 후 주가가 3.4% 올랐다. 페덱스는 이날 비용 절감 계획도 내놨다.

미국의 12월 소비자신뢰지수가 지난 4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오른 점도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3대 지수는 올해 2008년 이후 최악의 해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우지수는 올 들어 8.2% 하락했고, S&P500 지수는 18.6% 떨어졌다. 나스닥은 31.5%나 폭락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abiu@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